

기쁨속에 강조하신 문제

2017년 11월 어느날 순천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곳에 꾸려진 사료가공장도 돌아보시였다.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팽화기를 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책임일군에게 팽화기의 능력이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해 대답을 올린 일군은 설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설비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현지지도를 하는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원료, 자재는 물론 설비도 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만든 설비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터놓으신 그날의 뜨거운 심중에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고 무엇이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